**마0302(2) note**

◆ **구약의 회개(슈브)와 신약의 회개(메타노이아)**

자료 출처 : 조용현(한국성서학연구소 전임연구원)

**구약의 회개－슈브(bWv)를 중심으로－**

구약성경은 ‘회개’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히브리어에 있어서도 사실상 회개를 가리키는 특별한 단어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후회하다, 뉘우치다’라는 뜻의 마아스(sa'm;)와 니함(µj'nI)이 있지만

이 단어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후회에 사용되며(욥 42:6; 민 23:19; 삼상 15:11;

렘 4:28), 사람의 회개를 나타내는 데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사람의 참회 행동에 관한 구약성경의 대부분의 표현들은 ‘돌아오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동사 슈브(bWv)에 포함되고 슈브로 요약된다.

따라서 구약성경에 나타난 회개를 신학적으로 체계화하여 살펴보기보다는 회개를 의

미하는 슈브가 나타내는 회개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슈브의 어원 및 기본적 의미

슈브의 어원은 아카드어 샤부( sˇa-bu)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뜻은 ‘흔들리다(sway)’, ‘어지럽다(become dizzy)’이다. 여기서 비롯된 히브리어 슈브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로 그 기본적인 의미는 원래 있었던 곳으로 움직이는 것, 즉 ‘돌아오다’, ‘되돌아오다’이며 이것이 발전하여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 즉 회개를 의미하게 된다.

슈브와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로 수르(rWs)와 파나(hnP; ;)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물리적인 방향 전환을 의미할 뿐 회개와는 관련이 없으며, 앞서 언급한 마아스와 니함도 사람의 회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별히 니함은 주로 니팔 형태로 사용되면서 회개보다는 감정의 변화를 의미한다.

2. 슈브의 용례

슈브는 구약성경에서 열두 번째로 가장 자주 사용된 동사로서 총 1,060회 언급된다. 주로 칼(Qal, 기본형) 형태(683회)와 히필(Hiphil, 사역형) 형태(360회)로 사용되며 예레미야에 가장 자주 나오며(112회), 다음으로 시편(72회), 창세기(68회), 에스겔(63회), 역대상(62회), 열왕기상(62회), 열왕기하(55회), 이사야(51회) 순이다.

칼 형태 중에서 회개의 의미로는 129회 사용되었다.

한편, 회개와 관련된 히필 형태는 11회만 사용되어 구약성경에서 회개를 의미하는 것은 거의 슈브의 칼 형태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3. 구약에서 슈브의 의미

슈브가 의미하는 회개는 특별히 예언서와 역사서에서 강조된다.

예언서에서 회개의 목적은 원래 상태를 다시 회복하는 것, 즉 하나님과의 원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돌아감은 단순히 옛날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원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모스에서 슈브는 주로 사람들의 회개를 뜻하는 전문적인 용어로 사용된다(암 4:6-11).

호세아에서는 결혼에 비유되어 하나님을 불성실한 백성이 돌아가고자 하는 이혼 당한 남편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개를 원하지 않았기에 심판을 받아 다

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한다(호 11:1-11. 참고 5:4).

예레미야는 이러한 호세아의 결혼 비유를 발전시킨다(렘 3:1. 참고 8:4-7; 14:2; 15:15).

이사야 또한 회개를 언급하고 있으며(사 30:15), 특이한 점은 그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스알야숩(bWvy; ra;v].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이라고 했다.

포로기 전의 예언자들은 확실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즉 회개가 가능하다고 여겼고 거기에 큰 소망을 두었다.

한편, 역사서, 그 중에서도 신명기 역사서(여호수아－열왕기하)와 역대기도 회개를 강조한다.

그런데 예언서와의 차이점은 회개의 가능성에 대한 생각이다.

포로기 전의 예언서에서도 회개하면 재앙, 즉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있다고 했지만, 신명기 역사서는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재앙이 이미 도래하여 피할 수 없지만 여전히 회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역대기에서는 예언서에서 긍정적인 권고로 언급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명령과 함께 부정적인 권고, 즉 ‘악으로부터 돌이킬 것’도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는 예레미야와 에스겔에서도 나타나는데 단순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추상적인 회개보다 더 구체적이고 시급한 회개를 의미한다.

4. 슈브의 신학적 의미

할러데이는 슈브의 164회 용례들이 계약 용법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회개라는 큰 주제 아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학적인 개념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슈브는 회개라는 신학적인 개념에 있어서 중심적인 단어이다.

슈브가 의미하는 회개의 신학적인 개념에 있어서 기본적인 전제는 방향의 전환이다. 이러한 방향 전환에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과정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회개의 과정은 예레미야 3장 22-4장 2절에서 명확히 묘사되는데 그것은 회개의 참된 예전,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3:22),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3:23), “제(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로 자백하는 것(3:25), 부끄러움을 인정하는 것(3:25), 새로운 행동을 하기로 맹세하고 지키는 것(4:1-2)이다.

그런데 돌이키는 것은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적용되어 회개한 사람을 받아 주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기도 한다. 즉,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자신의 진노를 돌이킬 것임을 약속하신다(호 14:4).

아모스에서는 이와는 반대의 의미인 ‘돌이키지 아니하리니’(WNb,yvia} alO o)라는 표

현을 사용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

확실히 구약성경에는 명확한 회개의 개념과 체계화된 회개의 교리가 나오지 않는다. 그렇지만 구약성경은 슈브를 통해 기본적으로‘돌아오다’를 의미하며 돌아오기 전에 했던 악행, 폭력, 우상숭배 및 죄 등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다루는 구절들에 나타나 회개와 연결되고 있다.

더 나아가 예언자들은 슈브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대한 그릇된 태도에서 돌이켜, 인간의 전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께로 향할 것을 요청했는데 이런 개념이 구약성경에서 주로 말하는 회개라고 할 수 있다.

**신약의 회개－메타노이아(metanv oia)를 중심으로－**

자료출처 : 장성민 한국성서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신약성경에서 회개를 나타내는 용어는 크게 ejpistrevfw와 metanoevw로 대별될 수 있다. 칠십인역에서는 이 두 용어가 구별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신약에서는 두 용어가 거의 의미상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칠십인역이 회개를 뜻하는 ‘슈브’(bWv)를 주로 ejpistrevfw로 번역한 것과는 달리

신약성경은 칠십인역의 용례를 따르지 않고 슈브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metanoevw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metavnoia(metanoevw)의 의미를 중심으로 신약에 나타난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메타노이아의 어원 및 기본적 의미

기본적으로 보다 동적인‘돌아섬’을 뜻하는ejpistrevfw(to turn around)와는 달리 metavnoia(metanoevw)는 이 말이 전치사 metav(after, with,around 등)와 명사 nou'"(mind, intellect, insight 등)의 합성어라는 점에서 확인되듯이,

 ‘생각이나 태도의 변화’ 혹은 ‘다른 관점을 취하다’를 뜻한다.

이러한 변화는 느낌이나 감정, 혹은 의지나 생각에 영향을 끼치며 단순히 이지적인 사유의 결과에 따른 생각의 변화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코이네 헬라어에서 이 말은 주로 단순히 ‘생각의 변화’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metanoevw는 칠십인역에서 회개를 뜻하는‘슈브’(bWv)가 아니라 주로‘무엇인가를 후회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니함’(µj'nI)을 번역하기 위해서 14회 사용되었다.

2. 메타노이아(메타노에오)의 용례

신약성경에서 metavnoia(회개)와 metanoevw(회개하다)는 주로 공관복음서에 나타난다. metavnoia는 마가복음에 1회, 마태복음에 2회, 누가복음에 5회 나타나며,

같은 누가 저작인 사도행전에 6회 나타난다.

동사형태인 metanoevw는 마가복음에 2회, 마태복음에 5회, 그리고 누가복음에 9

회 나타나며 사도행전에서는 5회 나타난다.

오히려 서신서에는 이 용어들이 자주 나타나지 않는데, 바울은 metavnoia를 3회, metanoevw를 1회 사용하고 있다.

바울 서신을 제외한 다른 서신서들에서는 오직 명사형인 metavnoia의 형태만 나타나는데, 목회서신에서는 이 단어가 오직 한 번 등장하며, 히브리서에서는 3회 베드로후서에서 2회 나타난다.

특이한 점은 요한 문서에서 metavnoia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동사 형태인 metanoevw가 계시록에서 비교적 자주(11회) 등장한다.

3. 신약에서 메타노이아의 의미

공관복음에서 총 8회 나타나는 metavnoia 중에서 5회가 세례 요한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요한의 설교에서 이 단어는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다. 요한의 설교에서 ‘회개’는 무엇보다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의미한다(막 1:4 이하).

그러나 이는 단순히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요한은 설교의 말미에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마 3:8 병행)고 권고한다.

특이한 점은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에서 회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그러나 누가복음 10장 13절과 11장 32절 그리고 13장3절과 5절은 예수가 분명 회개를 선포했음을 보여 준다.

공관복음의 회개 선포가 ‘심판에 대한 경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긍정적인 의미에서 회개는 예수의 말씀과 사역들에 대해 헌신을 요구한다(눅 10:13;

11:32 병행).

따라서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선포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막 1:15). 즉 예수가 선포한 회개는 소극적인‘돌아섬’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미 도래하고 있는 ‘구원’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무엇보다 누가에게 있어서 회개는 죄의 용서(행2:38; 3:19; 5:31; 8:22 등) 혹은 세례 및 구원(혹은 성령, 행 2:38; 11:18 등)을 받아들이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누가에 따르면 회개는 용서의 전제이자 구원을 받아들이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바울 서신에서는 유대 전통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내하심이 인간을 metanoia v (metanoevw)에 이르게 하지만(롬 2:4), 반대로 ‘회개하지 않는 마음’(ajmetanovhto" kardiav , 롬 2:5)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고 언급한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이하와 12장 21절에서는 metanoia v (metanoevw)가 ‘마음의 변화’라는 다소 약화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회개를 통해 요구되는 삶은 주로 ‘믿음’ 이라는개념에 복속되어 있기 때문에, ‘회개’가 명시적으로 부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곧 바울이 회개를 중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외의 다른 서신들에서 metavnoia는 올바른 가르침과 행실로 돌아섬(딤후 2:25), 죽은 행실로부터 돌아섬(히 6:1), 신성모독으로부터 돌아섬(벧후3:3 이하 단락) 등의 의미로 사용되며, 특히 베드로후서에서는 회개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경건한 삶의 실현과 연결되어 있다.

4. 메타노이아의 신학적 의미

신약성경이 칠십인역의 용례를 따르지 않고 슈브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metanoevw를 채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신약성경 기자들이 구약에 나타난 슈브가 함의하고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념을 강조하기보다 오히려 생각이나 의지, 즉 nou'"를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용어를 변화시킨 것이 단순히 슈브의 의미를 개념화시킨 것은 아니다.

사실 metavnoia(metanoevw)를 주로 마음이나 생각의 변화로 이해하는 경향은 신약성경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실제로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용례들에 기초하여 생각할 때 이 용어는 어원적이거나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전인이 무엇인가로부터 돌아서서 새로운 삶이나 순종으

로 나아가는 것을 뜻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신약성경은 이 말을 단순히‘회개’(repent)라는 뜻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그 의미를 심화시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이고 윤리적인 태도의 온전한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약성경의 회개는 순수하게 외적인 돌아섬이나 단순한 내적인 생각의 변화가 아니라 양자 모두를 포괄하는 ‘진정한 돌아섬’을 의미하는 것이다.